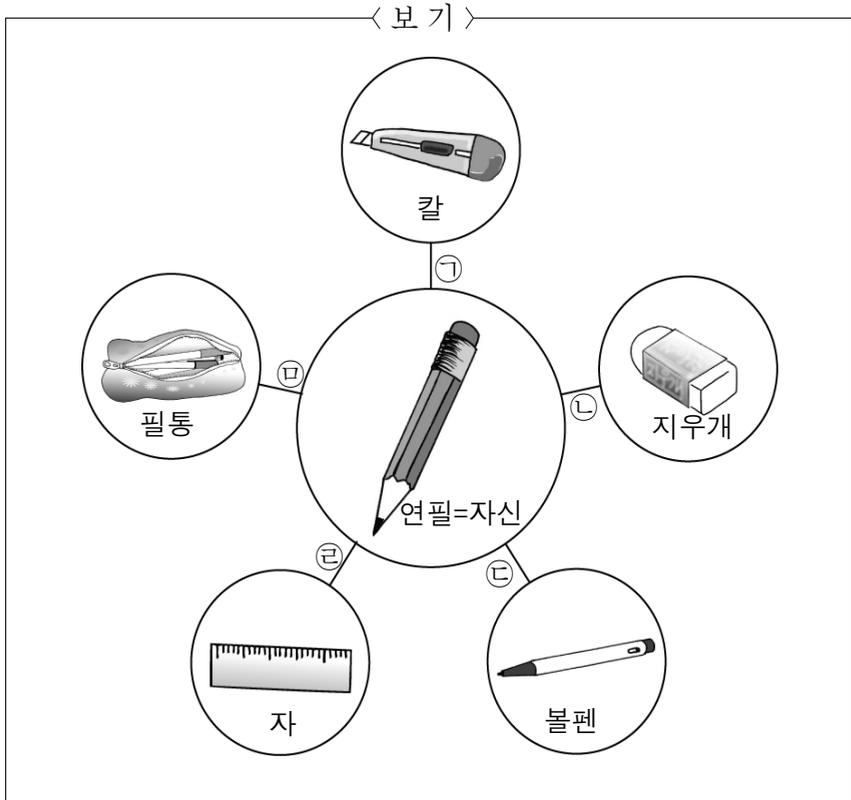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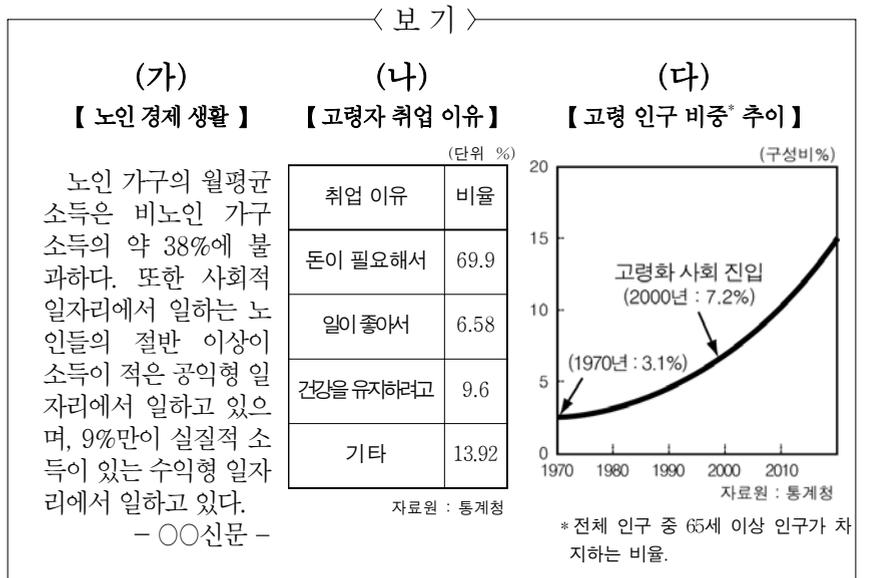
- ① ㉠ :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타인이 주는 아픔을 수용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② ㉡ : 자신의 실수를 고쳐 주기 위해 헌신한 사람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 ③ ㉢ : 자신과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④ ㉣ :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 ⑤ ㉤ : 자신을 비추어 주는 대상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7. ‘동아리 가입 홍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 보기 >
- 비유법을 사용할 것
 - 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소개할 것
 - 동아리 가입을 우회적으로 권유할 것

- ① 봉사 동아리 : 봉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보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돕는 길에 동참하십시오.
- ② 등산 동아리 : 우리 동아리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합니다. 산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우리를 푸근히 감싸 안아줍니다. 여러분도 산 정상에 올라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 ③ 기타 동아리 :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가 바로 기타입니다. 기타 선율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아리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실래요?
- ④ 독서 동아리 : 책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회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내 토론대회에서 단체전 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토론대회에 우리와 함께 참가하실래요?
- ⑤ 사물놀이 동아리 : 청소년 축제 한마당에서 사물놀이 부문 1등의 영광을 얻은 ‘어울림’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악기로 서양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아리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8.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효를 계승하기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② 고령화 사회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③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수익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④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취업 노인에 대한 직업의식 고취와 재교육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9. 다음은 ‘불꽃과 망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의 일부이다. 착상과 기본 설정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전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망치’와 구석에서 화로의 불을 조용히 지키는 ‘불꽃’ ○ 쇧덩이로 연장을 만들고자 ‘망치’와 ‘불꽃’을 불러 과제를 주는 ‘대장장이’ ○ ‘망치’는 쇧덩이를 힘껏 때렸지만 변화시키지 못하고 ‘불꽃’은 쇧덩이를 인내심 있게 달궈 변화시킴
----	--

기본 설정	주 제	• 겸손의 가치
	등장인물	• 의인화된 망치와 불꽃(주인공), 대장장이(보조인물)
	기본구조	• 대조적인 인물 제시 → 과제 부여 → 과제 수행 → 교훈 도출
	유의사항	• 이야기의 긴밀성을 고려할 것 •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인물의 성격을 설정할 것

세부 내용	○ 망치는 대장간에서 자신의 힘이 가장 세다고 큰 소리로 떠들며 뽐내고 있다. 그러나 불꽃은 그저 묵묵히 화로의 불을 지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①
	:
	○ 망치는 우쭐거리며 불꽃의 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불꽃은 망치의 강한 힘을 존중해 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②
	:
	○ 하루는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망치와 불꽃에게 각자의 능력으로 쇧덩이를 변화시키라는 과제를 준다. ③
:	
○ 망치는 맹렬한 기세로 두들겼으나 쇧덩이를 변화시키지 못해 초라해진다. 그러나 불꽃은 세찬 불로 쇧덩이를 녹여 변화시키고 그 기량을 망치에게 과시한다. ④	
:	
○ 과제를 마친 불꽃은 화로의 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를 본 망치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존중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⑤	

10. <보기>를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한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이 ㉠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 이해시키려면 그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 지닌다. 즉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그러나 가끔은 문화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① ㉠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특출’로 바꿔야겠어.
- ②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만들어낸 것’으로 바꿔야겠어.
- ③ ㉢은 부적절한 사동 표현이므로 ‘이해하려면’으로 바꿔야겠어.
- ④ ㉣은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지녀야 한다’로 바꿔야겠어.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11.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격 조사 ‘-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ㄱ. 집(의) 밖에서 손님이 소리쳤다.
 ㄴ. 내 고향, 제 사정, 네 일
 ㄷ. 우리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다.

- ① ‘-의’를 생략할 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군.
- ② ‘-의’가 생략되더라도 체언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군.
- ③ ‘-의’가 인칭 대명사 ‘나, 저, 너’와 결합하면 축약되는군.
- ④ ‘-의’가 결합한 체언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군.
- ⑤ ‘-의’를 생략할 경우는 앞과 뒤의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이군.

1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점]

< 보기 >

우리말에서는 뜻이 같으면서 형태가 다른 낱말들이 있을 때, 그 쓰임의 범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모두 표준어로 삼고 있다. 가령, ‘신’과 ‘신발’은 쓰임의 범위가 비슷하므로 모두 표준어이다. 이를 가리켜 ‘복수 표준어’라 한다.

- ① 천둥 / 우레
- ② 나귀 / 당나귀
- ③ 옥수수 / 강냉이
- ④ 자물쇠 / 자물통
- ⑤ 선머슴 / 뿔머슴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I」 -

(나) 오리치*를 놓으려 아배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트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
 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다가
 시악*이 나는는 등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짚과 버선목과 대님
 오리를 모다 던져버린다

장날 아침에 앞 행길로 엄지* 따러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
 고 나는 조르면
 아배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리로
 [A] — 매지야 오나라
 — 매지야 오나라

새하려* 가는 아배의 지계에 지워 나는 산(山)으로 가며 토
 끼를 잡으리라고 생각한다
 맞구멍난 토끼굴을 아배와 내가 막아서면 언제나 토끼새끼
 는 내 다리 아래로 달아났다
 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 한다
 -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

*오리치 : 오리를 잡는 뗏.
 *시악 : 화.
 *엄지 : 어미 말.
 *새하다 : 나무하다.

(다) 온갖 것이 남편을 닮은
 들쭉뚱이 보고파서
 호남선 삼등 야간 열차로
 육십 고개 오르듯 숨가쁘게 오셨다.
 아들놈의 출판기념회 때는
 푸짐한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아직 안 가라앉은 숨소리 끝에다가
 방울방울 맺히는 눈물을
 내게만 사알짝 사알짝 보이시더니
 타고난 시골숨씨 한철 만나셨나
 산1번지에 오셔서
 이불 빨고 양말 빨고 콧수건 빨고
 김치, 동치미, 고추장, 청국장 담그신다.
 양념보다 맛있는 사투리로 담그신다.

[B] — 엄니, 엄니, 내려가실 때는요
 비행기 태워드릴게.
 — 안탈란다, 안탈란다, 값도 비싸고
 이북으로 끌고 가면 어찌게야?
 옆에서 며느리는 웃어쌍지만
 나는 허전하여 눈물만 나오네.
 - 조태일, 「어머님 곁에서」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대상을 통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장면의 구성>

1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를 잡기 위해 논으로 내려간 아버지 ○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화가 나 철없는 행동을 보이는 화자
2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미를 따라 지나가는 망아지를 사달라고 조르는 화자 ○ 때를 쓰는 화자를 달래는 아버지
3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계에 아들을 태우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 아버지와 함께 토끼를 잡다 놓쳐 울상을 짓는 화자

- ① 아버지와 함께 한 어린 시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② 어린 화자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 ③ 각 연의 이야기는 병렬적인 구성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 ④ 화자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이 나타나 있어.
- ⑤ 각 연에 등장하는 동물의 명칭을 그대로 시의 제목으로 삼고 있어.

15. [A]와 [B]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를 달리하여 정서 변화를 이끈다.
- ② 극적 요소를 설정하여 현장감을 부여한다.
- ③ 시적 상황을 압축하여 긴장감을 높여 준다.
- ④ 시상을 전환하여 시적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 ⑤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16. (다)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숨가쁘게’에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 ② 2연의 ‘눈물’은 어머니 자신의 삶에 대한 한스러움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산1번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화자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양념보다 맛있는 사투리로 담그신다’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⑤ 5연의 ‘눈물’에는 어머니께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한 자식의 죄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플라톤의 사상에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플라토닉 러브는 남녀 간에 나누는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향연>에서 플라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에로스, 곧 지혜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

17. 위 글에서 언급된 것은?

- ① 플라톤이 쓴 저서들의 목록
- ②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당시의 비평
- ③ 플라톤이 소피스트를 비판하게 된 계기
- ④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후대의 학파
- ⑤ 플라톤의 입장에서 규정될 수 있는 철학자의 의미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플라톤이 쓴 <향연>은 ‘에로스(사랑)’를 주제로 한 유쾌한 토론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에로스에 관하여’인데, 이는 후대에 플라톤의 전집을 정리하면서 붙여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 플라토닉 러브를 정신적인 사랑으로, 에로스를 육체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의 의미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에로스의 다양한 의미를 대화체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여 에로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로스는 결핍의 신인 ‘페니아’와 탐구와 술책, 그리고 모험의 신인 ‘포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결핍 상태에 있지만 항상 훌륭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계책을 꾸민다네. 그리고 그는 용감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전력투구하는 뛰어난 사냥꾼이라네. 끊임없이 계략을 짜냄으로써 지혜를 얻고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가며 평생 지혜를 탐구하고 살지. 그는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서 있다네. 사실 지혜란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있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지혜를 사랑하는 한 그는 ㉡ 지자(知者)와 ㉢ 무지자(無知者) 사이의 중간자가 되는 셈이라네.”

이 이야기는 에로스가 결핍 상태의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탐구와 모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이 <향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로스이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에로스의 중요한 의미로 본 것이다. 그것은 지혜, 곧 ‘소피아’를 사랑한다는 뜻의 필로소피아이다. 물론 이 말은 플라톤 이전에도 ‘끊임없이 탐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구 철학의 역사에서 소피아와 필로소피아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플라톤의 영향 때문이다. 즉, 이러한 구분은 그리스 시대에 강연자 혹은 교사라 일컬어지는 소피스트들이 출현하자 플라톤이 이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애지자(愛知者)인 철학자는 끊임없는 탐구와 생각으로 사물과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포착하여 자신이나 타자와 소통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8. 위 글로 보아 ‘플라톤’이 [A]를 인용한 의도를 추리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로스’가 완전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 ② ‘에로스’와 ‘필로소피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 ③ ‘에로스’의 진정한 의미를 부각시켜 그 가치를 환기하려고
- ④ ‘에로스’라는 신적인 존재를 통해 그 숭고한 사랑을 강조하려고
- ⑤ ‘에로스’에 대한 기존 평가를 비판하고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려고

19. ㉠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이 이끌어 낸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과를 알아도 맡은 일은 마무리해야 한다.
- ② 이치를 알려면 부단한 노력으로 탐구해야 한다.
- ③ 아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상대방과의 오해는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⑤ 쉬운 일이라도 신중을 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0.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 ㉢와 다른 하나는? [1점]

- ① 쾀다 : 끄다
- ② 당기다 : 끌다
- ③ 피하다 : 맞서다
- ④ 나타나다 : 사라지다
- ⑤ 출발하다 : 도착하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생이 객점에서 자는데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닭 우는 소리를 기다리더니, 한참 후에 날이 장차 밝으려 하자 생이 서동을 불러 말을 먹이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입고 문 밖에 내달아 보니 피난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거늘, 생이 황망히 연고를 묻자, ‘신책장군(神策將軍) 구사량(仇士良)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키자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신책의 대병을 단번에 쳐 과하니 도적이 패군하여 온다.’ 하거늘, 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피난하여 도망할 때, 갈 바를 몰라 남전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 산수를 구경하다가, 문득 보니 절벽 위에 수간 초당이 있는데 구름에 가렸고 학의 소리가 들리거늘, ‘분명 인가가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 도사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다가 양생을 보고 기뻐하여 물어 말하였다.

“너는 피난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회남 양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재배하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양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버를 이별하고 다만 어미를 의지하여 재주가 심히 미련하나 망령되어 요행으로 과거를 보려 화음 땅에 이르렀는데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와 오늘날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기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의 쾌장(几杖)*을 모셨으니, 앞드려 빌건대 부친은 어디 계시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은 아끼지 마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네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었는데 어디로 간 줄을 알겠느냐. 얼굴이 아이 같고 머리카락이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때는 염려치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선생의 도움으로 부친을 뵈게 하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부자간 지극한 정이 중하나 신선과 범인(凡人)이 다르니 보기 어렵다. 또 삼산(三山)이 막연하고 십주(十洲)가 아득하니 네 부친의 거취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너는 부질없이 슬퍼 말고 여기서 머물며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는데 도사가 갑자기 벽 위의 거문고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는 저것을 하느냐?”

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자가 좋아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사가 동자를 시켜 거문고를 내려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네 곡조를 가르치니,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또렷하여 인간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생에게 타라고 하자,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타니 도사가 기특히 여겨 옥통소 한 곡조를 불며 생을 가르치니 생이 또 능히 따라하였다.

도사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제 한 거문고와 한 통소를 네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생이 감사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생이 선생을 만나기도 부친의 인도하심이요, 또 선생은 부친의 친구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너를 따르니 네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老夫)를 좇아 숙절없이 늙겠느냐? 말년

에 네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음 땅의 진씨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네 혼사는 여러 곳에 있지만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아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자는데 문득 동방이 밝았다.

도사가 생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는 다음 봄으로 기한이 옮겨졌다.

①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 주었다. 양생이 상하에 내려 재배하고 거문고와 통소를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데 없었다.

처음에 양생이 돌아갈 때는 춘삼월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에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팔월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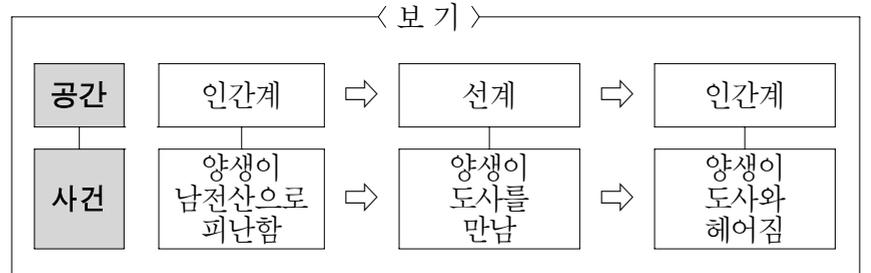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쾌장(几杖) : 팔걸이와 지팡이.

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2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은 선계에서 부친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 ② 양생이 머문 선계의 시간 흐름은 인간계와 차이가 있다.
- ③ 양생은 선계에서의 체험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
- ④ 양생은 인간계에 머물다 스승을 찾기 위해 선계를 방문하였다.
- ⑤ 양생은 고난의 과정 없이 ‘인간계 → 선계 → 인간계’로 이동하였다.

23. ‘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신선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 ②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해 준다.
- ③ 주인공이 과거를 반성하도록 깨우쳐 준다.
- ④ 주인공이 학문에 정진하도록 조언해 준다.
- ⑤ 주인공에게 위기에 대처할 계책을 알려준다.

24. ㉠에 나타난 대부인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포자기(自暴自棄) ② 망양지탄(亡羊之歎)
- ③ 후회막급(後悔莫及) ④ 각골난망(刻骨難忘)
- ⑤ 노심초사(勞心焦思)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어 경어 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용언의 종결형에 서이다. 예컨대, 동사 ‘하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언급 되는 대상 사이의 위계에 따라 명령형에서는 ‘하라/해라, 해, 하게, 하세요(하시오), 하십시오, 하소서, 하시옵소서’ 등으로 변하고, 서술형에서는 ‘한다, 해요, 하세요, 합니다, 하십니다, 하시옵니다, 하나이다, 하시옵나이다’ 등으로 변하며, 의문형에서는 ‘하니, 해, 해요, 하세요, 합니까, 하십니까, 하시나이까, 하시옵나이까’ 등으로 변한다. 한편, ‘하시옵소서, 하나이다, 하시나이까’ 같은 하소서체(體)의 극존칭은 현대어의 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문어나 사극(史劇)의 대사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어의 경어 체계가 이렇게 어미 변화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어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높임말을 따로 지니고 있다. 가령, ‘떡다’는 ‘잡수다/잡수시다’, ‘자다’는 ‘주무시다’, ‘주다’는 ‘드리다’, ‘묻다’는 ‘여쭙다’, ‘있다’는 ‘계시다’, ‘집’은 ‘댁’, ‘밥’은 ‘진지’라는 높임말이 있다. 주격 조사 ‘이/가’와 부사격 조사 ‘에게’도 높임의 대상 뒤에서 각각 ‘께서’와 ‘께’로 변한다. 그런데 이 관계가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쭙다’나 ‘드리다’는 그 행위의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쭙거나 드리는 행위의 주체를 낮추는 것이다. 즉, 한국어의 경어 체계에는 존경법과 겸손법이 섞여 있는 것이다.

또한 존경법과 겸손법을 겸하는 말도 있다. ‘말씀’이 그렇다. ‘말씀’은 맥락에 따라 그것을 발화(發話)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상반된 의미 기능을 지닌다. 예컨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에서 ‘말씀’은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에서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앞의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고 뒤의 ‘말씀’은 말의 낮춤말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경어 체계 안에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법, 말을 하는 자신을 낮추는 법,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법 등이 각각 마련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섬세하게 서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는 위계 질서의 미묘한 차이들로 가득 차 있는 언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 이인칭 대명사가 손아랫사람이나 허물없는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한국어의 이인칭 대명사는 구어(口語)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는 ‘너’ 하나뿐인데, 이 말은 뒤에 조사가 붙으면 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당신’은 약간의 높임을 지닌 이인칭 대명사로 중년 이상의 부부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A] 와 달리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경우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존칭을 사용해야 할 대상에게는 이인칭 대명사의 자리를 제로(zero) 형태로 비워두거나, 연령적·가족적·직업적·신분적 위계를 표시하는 명사 또는 상대방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름 뒤에 사용하는 ‘씨’가 점차 예사말의 성격을 띠게 돼, 높여야 할 자리에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 위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 ①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경어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② 경어 체계가 반영된 용언의 명령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③ 어미 변화 이외에 경어 체계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④ 현재 우리말의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극존칭은 무엇인가?
- ⑤ 화자가 청자를 의식해 행위의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26.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친구가 나를 불렀다.
 ㄴ. 학생들은 지금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ㄷ. 나는 할아버지를 정류장까지 모시고 가겠다.
 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 드렸다.

- ① ㄱ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으로 바뀌면 주격조사와 용언의 종결형이 높임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 ② ㄴ의 ‘합니다’는 화자와 청자의 위계를 알 수 있게 한다.
- ③ ㄷ의 ‘모시고’는 행위의 객체를 높이고 행위의 주체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 ④ ㄹ에서 앞의 ‘말씀’은 말의 낮춤말이고 뒤의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다.
- ⑤ ㄱ~ㄹ을 통해 우리말의 경어 체계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7. [A]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름 뒤에 사용하는 ‘씨’는 앞으로 높임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② 이인칭 대명사 ‘너’에 주격조사 ‘-가’가 붙으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 ③ 대화 상황에서는 이인칭 대명사를 ‘제로(zero) 형태’로 비워 둘 수 있다.
- ④ 다투는 상황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가 될 수 있다.
- ⑤ 구체적인 발화 장면에서 ‘과장, 선배’ 등과 같은 명사가 이인칭 대명사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7년 미국의 데이비드 줄리우스 연구팀은 ‘캡사이신 수용체 : 통증 경로에 있는, 열에 의해 활성화되는 이온 채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고추의 강한 자극성 물질인 캡사이신이 하나의 센서를 자극해 뇌가 통증과 열을 감지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팀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조사한 결과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 단백질’이 통증을 느끼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온 채널 단백질은 평소에는 통로가 막혀 있지만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통로가 열리면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이 발견한 이온 채널 단백질은 [A] ‘TRPV1’로 온도가 42℃가 넘거나 캡사이신이 달라붙으면 이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밖의 나트륨 이온(Na⁺)과 칼슘 이온(Ca²⁺)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 내부의 전위가 바뀌면서 전기 신호가 축색돌기를 타고 척수를 거쳐 대뇌로 전달돼 통증과 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고추를 먹으면 얼얼하고 더운 느낌이 드는 것은 캡사이신이 TRPV1을 자극해 통증과 열 신호를 대뇌가 감지하여 반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TRPV1 유전자가 고장난 개체는 통증과 열을 못 느낄까? 이 연구팀은 ㉠ TRPV1이 없는 실험쥐를 만들었다. 이 실험쥐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쥐와 같지만 캡사이신을 투여하거나 주위 온도를 높이면 뚜렷한 행동의 차이를 보였다. 즉 물에 캡사이신을 탈 경우, 정상 쥐는 한 번 먹은 ㉡ 뒤로는 입을 대지 않는 반면 실험쥐는 그 물을 맹물처럼 여러 번 마셨다. 또 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정상 쥐는 얼른 꼬리를 빼지만 실험쥐는 그 반응이 훨씬 느렸다. 이러한 실험쥐의 행동은 TRPV1이 통증이나 열과 관련된 센서임을 확증할 수 있게 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열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것은 또 다른 열 센서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TRPV1과 비슷한 유전자가 몇 개 더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을 조사하여 네 종류의 유전자가 온도 센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TRPV1은 42℃ 이상일 때, TRPV2는 52℃ 이상일 때, TRPV3은 33℃ 이상일 때 이온 채널이 열려 온도를 감지하고, TRPV4는 27~42℃에서 이온 채널이 열려 온도를 감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결국 뇌는 온도에 따라 이온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는 여러 유형을 종합해 온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캡사이신은 온도 센서 가운데 TRPV1에만 달라붙고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실험쥐가 캡사이신으로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열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위의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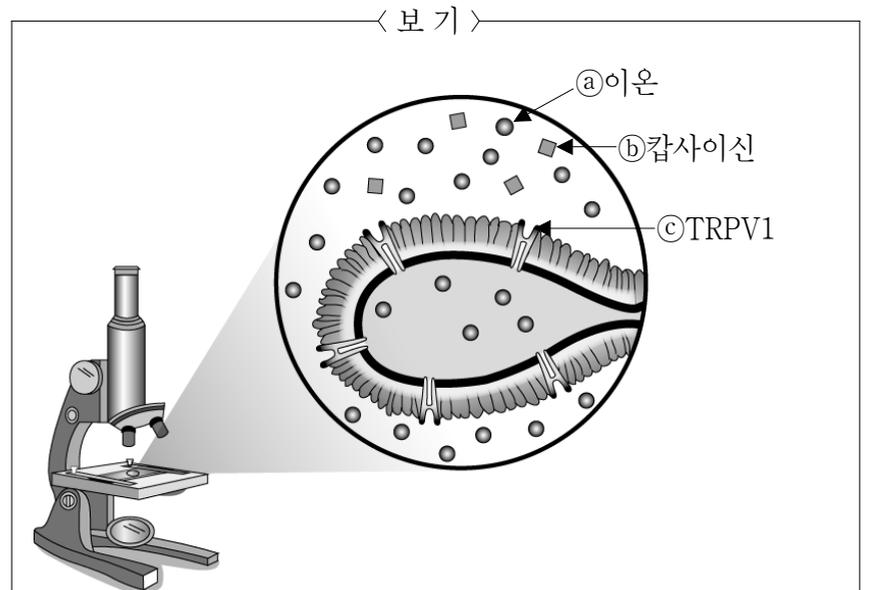
우리가 주위 온도에 반응하는 것은 항온 동물로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진화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온도 센서 단백질이다. 고추를 먹고 덥다고 느끼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깜빡 속은 셈이지만 캡사이신이 온도 센서 단백질을 자극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2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현상에 들어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근거를 제시하여 기존의 원리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 ④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⑤ 새로 발견된 과학적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b)와 결합하여 신경 세포 안에서 전위를 바꾼다.
- ② (a)는 (c)가 닫혀 있으면 신경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 ③ (b)가 (c)에 달라붙으면 이온 채널 단백질의 통로가 열린다.
- ④ (b)가 (c)를 자극하면 대뇌가 통증과 열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⑤ (c)는 (b)가 없어도 온도가 42℃ 이상이면 그 통로가 열린다.

30. ㉠으로 실험한 결과에 대해 연구팀이 가졌을 직한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뜨거운 물의 온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 ② 실험쥐는 왜 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을까?
- ③ 캡사이신이 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까?
- ④ 캡사이신과 열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 ⑤ 캡사이신을 많이 투여하여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닐까?

31. ㉡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녀의 집 뒤에는 얇은 개울이 있었다.
- ②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살피기로 하였다.
- ③ 그의 뒤는 내가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 ④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 ⑤ 그 사건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32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계의 여러 나라는 경제 성장이 국민 소득을 높여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만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미국의 이스털린 교수이다. 그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지수화(指數化)하였다. 그 결과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편이었으나, 국가별 비교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 국가 내에서 가난했던 시기와 부유해진 이후의 행복감을 비교해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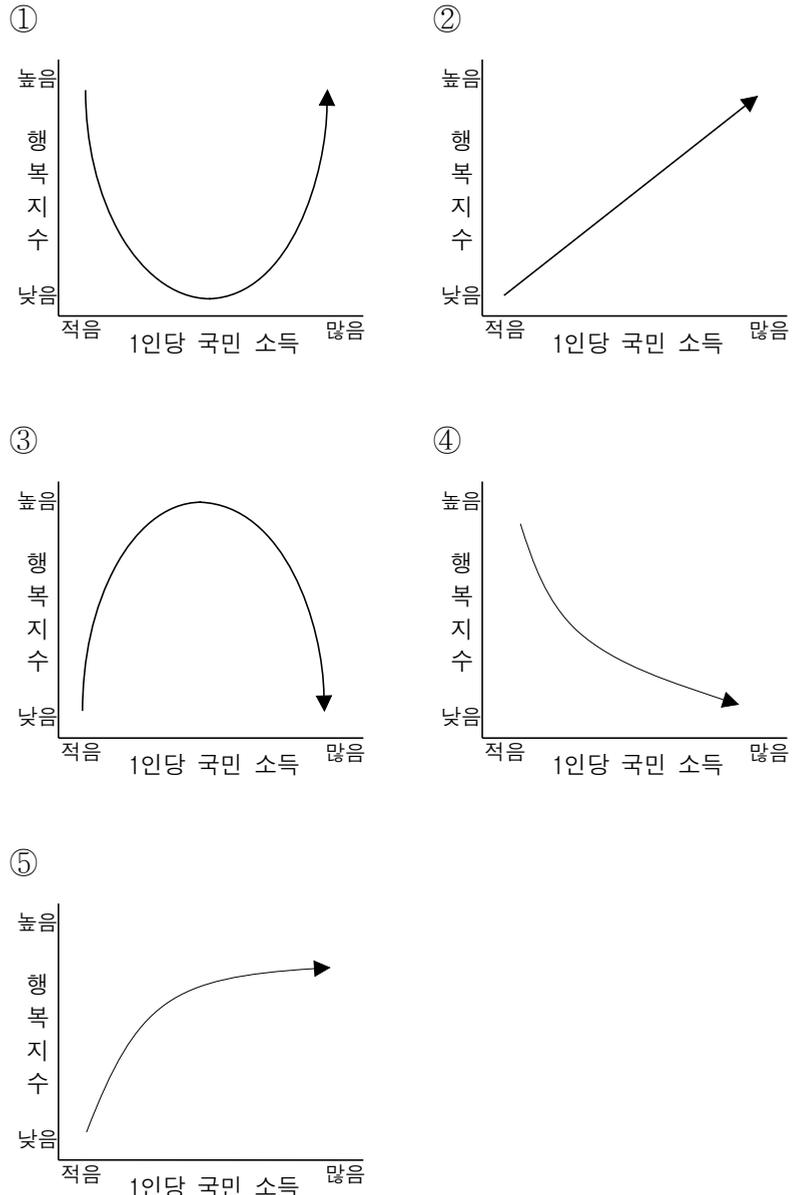
이처럼 최저의 생활수준만 벗어나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경제 성장은 개인의 행복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부른다.

만일 행복이 경제력과 비례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하고 또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가 행복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털린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과 경제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즉, 사회 전체의 차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털린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은 행복과 소득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고 왜 이러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우선 사람들이 행복을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자신의 소득에 적응하게 되면 행복감이 이전보다 둔화된다고 보았다. 또 ‘인간 욕구 단계설’을 근거로 소득이 높아지면 의식주와 같은 기본 욕구보다 성취감과 같은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므로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과 함께 자아실현의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적인 부유함을 더 누릴 수 있게 할 수는 있어도 행복감마저 그만큼 더 높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33. ㉠을 그래프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스털린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을 지수로 만들었다.
- ② 이스털린 이후에도 행복과 소득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③ 이스털린의 국가별 비교 조사에서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일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이스털린과 같은 관점의 연구자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분배 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이스털린은 한 국가 안에서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행복감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34.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행복은 소득과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때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 ③ 국가가 국민의 행복감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 ⑤ 행복은 성장보다 분배를 더 중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줄기 긴 물굽이가 골짜기 틈 사이로 뿜어나와,
백 길이나 되는 용추로 쏟아져서 들어가는구나.
거꾸로 엎어지며 날리는 샘이 구름이 아닌가 싶고,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운 모습 흰 무지개인가.
우박이 날리고 벼락이 달리다 골짜기에서 멈추고,
구슬 방아에서 옥이 부서져 맑은 하늘을 뒤덮네.
구경꾼들아 여산이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다오.
해동에서는 천마산이 으뜸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A]

一派長川噴壑巖	龍湫百仞水濼濼
飛泉倒瀉疑雲漠	怒瀑橫垂宛白虹
雹亂霆馳彌洞府	珠春玉碎徹晴空
遊人莫道廬山勝	須識天磨冠海東

- 황진이, 「박연시(朴淵詩)」 -

(나) 추(秋) • 2

水滸國국의 2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이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꺨지 容용與여ᄃᆞᆫ자.*

至지芻국ᄃᆞᆫ총 至지芻국ᄃᆞᆫ총 於어思사臥와

人인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동(冬) • 4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란고야.

이어라 이어라

앞희는 萬만頃경疏유璃리 뒤희는 千천疊疊玉옥山산.

至지芻국ᄃᆞᆫ총 至지芻국ᄃᆞᆫ총 於어思사臥와

仙선界계가 佛블界계가 人인間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용여ᄃᆞᆫ자 : 마음대로 하자, 안겨 보자.

(다)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는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 앓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옷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 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역시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등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은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 할 것이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고 살아도 싫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기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목도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온갖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로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天命)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堅忍主意者)*요, 고독의 철인(哲人)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현인(賢人)이다.

[B] 불교의 소위 윤회론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 이양하, 「나무」 -

* 후박(厚薄) : 후하게 구는 일과 박하게 구는 일.

* 견인주의자(堅忍主意者) : 굳게 참고 견디는 도덕주의자.

3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3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활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후렴구를 통해 흥겨움과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에서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과장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글쓴이의 자부심이, [B]에는 글쓴이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두 공간의 유사점이, [B]에는 두 존재의 차이점이 부각되어 있다.
- ③ [A]와 [B]에서는 모두 글쓴이의 태도를 정감 있는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이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자연에 의지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8. <보기>를 참조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효종은 즉위 이후 자신의 스승이었던 윤선도를 등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헌부 및 여러 신하들은 윤선도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그의 등용을 반대했다. 결국 윤선도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면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윤선도는 전라남도 보길도에 머물면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어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면서 당시의 심경도 같이 드러냈다.

- ① ‘水滸國國’은 윤선도가 은거하던 전라남도 보길도를 말하는 것이군.
- ② ‘슬꺄지 용용與여호쟈’는 경치를 즐기고 있는 윤선도의 흥취가 나타난 것이군.
- ③ ‘人人間간’은 윤선도의 지난날을 비판한 무리가 있는 세계를 의미하겠군.
- ④ ‘景景物물이 달란고야’는 효종을 그리워하는 윤선도의 심경이 나타난 것이군.
- ⑤ ‘仙선계계, 佛블계계’는 눈 내린 어촌의 아름다운 겨울 경치를 표현한 것이군.

39. (다)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상	의미 발견	깨달음
등성이나 골짜기에 있는 나무	처지에 대한 불만이 없음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존재 …… ㉠
혼자 있는 나무	어떤 상황에서도 고독함	타자와 유대감을 가지려는 존재 …… ㉡
달, 새, 바람과 함께 있는 나무	주변 존재와 더불어 살아감	이해심과 관대함이 있는 존재 …… ㉢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존재 …… ㉣
상처가 있는 나무	상처를 준 존재를 원망하지 않음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기려는 존재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5년에 2억 3000만 톤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3억 4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특히 매립을 해도 잘 썩지도 않고 또 소각을 하면 연소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재활용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PVC는 가열하면 염화수소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할 ‘애물단지’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종류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근적외선 분광법은 근적외선을 쬐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즉,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페트병과 플라스틱 그릇, 장난감 등을 이동시키면서 근적외선을 쬐어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분석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병이나 용기처럼 부피가 큰 것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비중 선별법은 기름이 물에 뜨듯 플라스틱마다 비중이 다른 점을 응용한 분류법이다. PE와 PP의 비중은 약 0.9로 가벼운 플라스틱에, PS와 PET, PVC는 비중이 1을 넘는 무거운 플라스틱에 속한다. 이 분류법을 이용하면 잘게 부순 플라스틱 조각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정전 선별법은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섞여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서로 마찰시키거나 형질에 문지르면 재료별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기적 성질을 각각 띠게 된다. 보통 일함수* 값이 낮은 쪽이 양전하를 띠고, 일함수 값이 높은 쪽이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플라스틱마다 그 값이 다르다. 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들을 높은 전압이 흐르는 전기장 사이로 통과시키면 각각 반대 극을 향해 끌려가며 분리된다. 즉, 양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은 전기장의 (-)극으로, 음전하를 띤 조각은 전기장의 (+)극으로 이동하여 각각 분류된다. 여기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조각들은 앞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플라스틱 ㉢ 재활용 공정에서는 근적외선 분광법과 비중 선별법, 정전 선별법이 활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병이나 용기는 근적외선으로 분류하고, 이후 나머지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 비중 선별법과 정전 선별법을 차례로 이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한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녹여 그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고품 연료와 석유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32.8%에 이르고 매년 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유용한 기술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일함수 : 물질 속에 있는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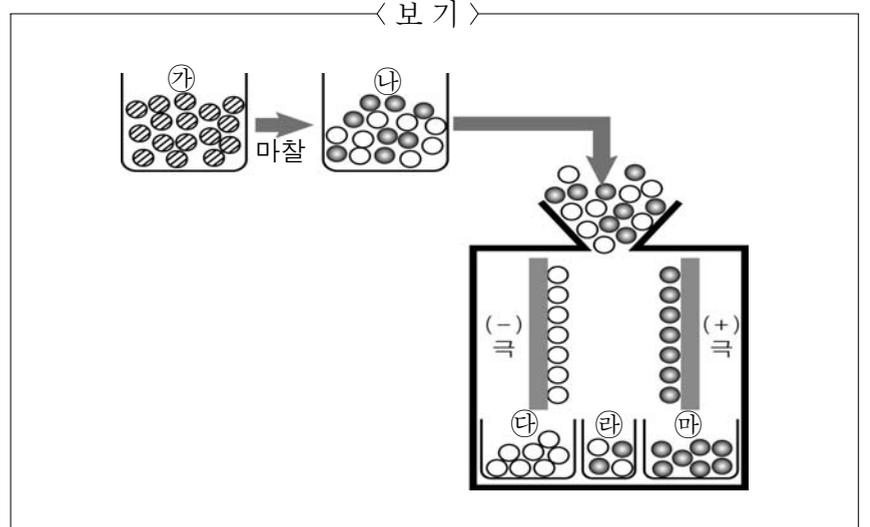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② PVC가 섞인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은 그 품질이 떨어진다.
- ③ 수작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류별로 나누기는 어렵다.
- ④ 비중 선별법을 이용하면 PET와 섞여있는 PS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⑤ 근적외선 분광법은 병처럼 부피가 큰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는 데에 유용하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라스틱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 ②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소각하기 위해서
- ③ 플라스틱 폐기물을 그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 ④ 플라스틱의 종류를 육안으로 보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 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일상생활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42. <보기>는 ㉡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플라스틱 조각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 ② ㉡의 플라스틱 조각은 일함수 값이 서로 다른 플라스틱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 ③ ㉢로 분류된 것은 양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이고, ㉣로 분류된 것은 음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이다.
- ④ ㉢의 플라스틱 조각은 ㉣에 있는 플라스틱 조각보다 일함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⑤ ㉣의 플라스틱 조각은 정전 선별법의 과정을 반복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43. ㉢의 접두사 ‘재-’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시 하는’의 뜻을 더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 ① 덧-대다 ② 들-볶다 ③ 되-감다
- ④ 치-솟다 ⑤ 휘-젓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 사람들은 ‘그림을 본다’는 말보다 ‘그림을 읽는다’는 말을 즐겨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동양의 오랜 전통인 서화일률(書畫一律)의 뜻을 알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 서화일률은 글씨와 그림이 한 가락이라는 말이므로 그림도 글을 쓰고 읽듯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는 서양식 가로쓰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읽으며 이 방식대로 그림을 본다. 이때 시선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그림을 보는 사람의 잠재적 시선은 우선 좌상(左上)으로 갔다가 대각선을 따라 우하(右下)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우상(右上)으로 갔다가 역시 대각선을 따라 좌하(左下)로 시선을 이동한다. 즉, 영어의 알파벳 ‘X’자를 쓰듯이 그림을 감상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눈길을 옮겨 가며 감상했다. 즉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이어지는 대각선의 흐름을 따라 읽은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한문이건 한글이건 그렇게 쓰고 읽었으며, 옛 악보인 정간보(井間譜)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옛 그림에서 중요한 자리는 오른쪽 상단이고, 왼쪽 하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우상(右上)에 제목을 적고 좌하(左下)에 작가의 관지(款識)*를 넣는 것은 그때문이다.

서양 그림은 서양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X자의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옛 그림을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우리 그림은 모름지기 한자 ‘풀 벨 예(父)’자의 획순처럼, 먼저 삐침을 따라서 보고, 이어 파임을 쫓아가듯이 감상하는 것이 좋다. <상서(尙書)>의 홍범(洪範) 편에 “종작예(從作父)”라는 글귀가 있다. 이 말은 ‘이치를 따르니 조리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옛 그림을 조리 있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옛 그림의 표구 형식이 족자(簇子)나 병풍차(屏風次)*처럼 내리닫이가 많은 것은 모두 글 쓰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옛 화가들에게는 세로로 읽고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으므로, 보는 이도 당연히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 쪽으로 감상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고, 세부를 조정하며 또 필획(筆劃)의 강약까지도 조절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옛 그림의 표면에 나타난 형상보다 그 형상에 담긴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방식대로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의미까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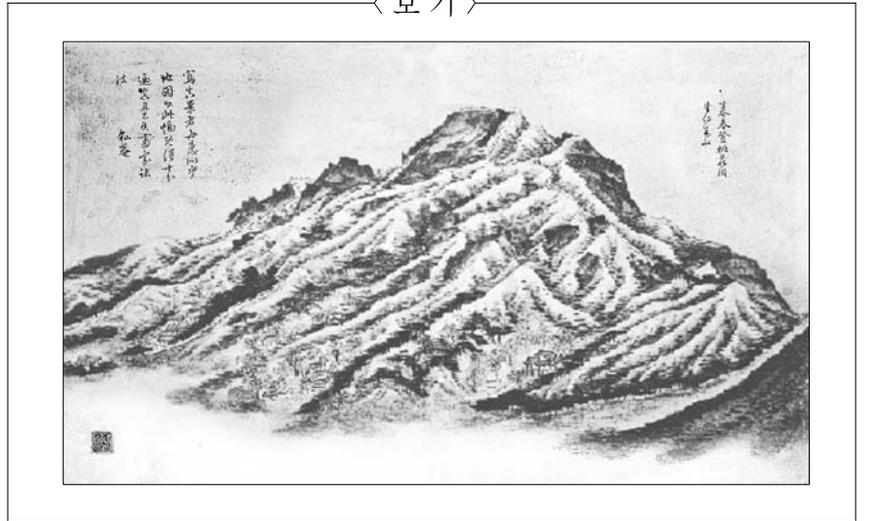
* 관지(款識) : 글씨나 그림에 작자가 자기 이름이나 호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 병풍차(屏風次) : 병풍을 꾸밀 그림이나 글씨.

44. 위 글의 내용 전개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개념 제시 → 사례에의 적용 → 개념의 구체화
- ② 문제 제기 → 대상의 문제점 분석 → 대안 제시
- ③ 화제 제시 → 대상 간의 대비 → 화제의 의미 강조
- ④ 기존 견해 소개 → 기존 견해 비판 → 새로운 견해 제시
- ⑤ 상반된 견해 소개 → 견해의 장단점 비교 → 견해의 통합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우상(右上)에 있는 제목이 좌하(左下)에 있는 작가의 관지보다 더 중요하겠군.
- ② 정간보를 보는 방식대로 그림을 감상하면 ‘산 → 글 → 제목 → 관지’의 순서가 되겠군.
- ③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흐르는 세밀한 능선은 작가가 보는 이를 생각하고 구도를 잡은 것이군.
- ④ 우상(右上)의 제목이나 좌상(左上)의 글은 모두 작가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려는 의미와 관련이 있겠군.
- ⑤ 알파벳 ‘X’자를 쓰듯이 먼저 왼쪽 획의 흐름에 따라 그림을 보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가 어렵겠군.

46. 위 글의 글쓴이가 한국화를 감상하려는 학생에게 조언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에 재현된 형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② 작품에 그려진 형상에서 받은 첫인상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작품의 감상은 형상의 외적인 미를 찾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 ④ 작품을 조리 있게 보는 방식을 익혀 작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 ⑤ 작품과 시대 상황을 관련지어 작가가 추구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한 과자 위에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 그러나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넘어가는 침은 어쩔 수가 없었다.

[A] “뭐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냐, 대답하겠니? 네 대답 한마디면 아저씨는 친구를 만나서 좋고, 너는 이 맛있는 쫄쫄렛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받아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해서였을까. ㉡ 혹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나이의 시골 애답게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낯가림 때문에 그랬을까. 확실한 것은 별로 기억에 없다. 아무튼 나는 꽤 오래 시간을 끌었던 것 같다.

“싫어?” 사내가 재촉했다. “싫단 말이지?”

사내는 몹시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별수 없구나. 착하게 굴면 이걸 꼭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젠 하는 수 없다.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야. 자, 봐라. 아깝지만 이렇게 내버리는 수밖에…….”

실제로, 사내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실제로 땅바닥에 던졌다. 던졌을 뿐만 아니고 구두 뒤축으로 짹짹 밟아 뭉개어 버렸다. 내 표정을 흘끗 읽고 나서 그는 또 한 개를 내던졌다.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앤 줄 알았는데…… 참 안됐구나.”

그는 또 한 개를 구둣발로 짓밟아 놓았다. 벌써 세 개째였다. 사내의 손 안엔 이제 두 개의 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사내의 태도로 보아 나머지 두 개마저도 충분히 짓밟고 남은 사람이었다. 사내가 별안간 꺾꺾 웃었다.

“너 이녀석 우는구나. 못난 녀석 같으니라구. 애, 꼬마야. 이제라도 늦진 않아. 잘 생각해 봐.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지?”

어른의 비상한 수완을 나로서는 도저히 당해 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B] 막 시작할 때의 첫마디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일단 얘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연자새에 감긴 실처럼 전날 밤의 기억들이 술술 풀려 나왔다.

<중략>

“밖에 거 누구요!”

아버지가 소리는 작으나 엄하게 꾸짖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움직이는 소리가 딱 그쳤다. 불현듯 그것이 어디선가 많이 귀에 익은, 어쩌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게 누구일까고 다급히 생각해 보았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듯했다. 삼촌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눈깜짝할 사이에 시커먼 몸뚱이가 내 앞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뒷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고 삼촌의 커다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곧두박질을 했다. 어느새 삼촌은 대밭 속을 빠져 나가고 있었다. 어쩌나 동작이 날렵하던지 누가 붙잡고 말 한마디 건넬 여가도 없었다. ㉣ 삼촌이 망가뜨리고 간 뒷문을 통해서 나는 밖으로 나갔다. 부엌 옆을 돌

아 안마당으로 달렸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마당에서부터 텃밭을 지나 대문간까지 울바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살폈으나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나 불이 꺼진 사랑채에 시선이 머물자 그곳에서 나는 절반쯤 열려 있던 방문이 희부연 여명을 밀어내며 소리 없이 닫히는 걸 보았다. 이 발견으로 하여 나는 크나큰 희열을 맛볼 수가 있었다. 그렇다, 역시 그것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귀에 익은 발소리였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다 챙겨 놓 것인데……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못 쥐여 보내고…… 누가 알았어야지…… 쓰듯한 밥 한 그럭 지대로 못 맥여 보내다니…… 누가 알았어야지…….”

가슴을 뜯으며 흐느끼는 할머니 옆에서 고모가 내 손목을 꼬옥 잡아 한쪽으로 끌었다. 이어서 고모는 뜨거운 입김을 내 귓속에 불어 넣었다.

“삼촌이 집에 댕겨갔다는 얘기 누구한테도 허서는 안 되야. 알겠냐?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원 집안이 큰일난다. 짹혀가. 알겠냐? 알겠냐?”

동네 사람들이 우리집 대문 앞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게들 모여서서 웅성거리며 대문 안을 넘어다보려고 열심이었다. 당산 근처까지 들리던 여인네들의 통곡은 바로 우리집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였다.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나를 턱으로 가리키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나누고는 또 쭈군거렸다. 사람들이 이내 좌우로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길이 뚫렸다. 낯선 사내가 앞장서 걸어 나오고 바로 뒤를 이어 아버지가 따라 나왔다.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 맥고자의 사내가 보였다. ㉤ 그는 아버지의 팔을 뒤로 결박한 오라의 한쪽을 손에 감아쥐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헤벌쭙 웃으며 한 눈을 찡긂해 보였다. 내 앞에서 아버지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는 몹시 안타까워하는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보며 한참이나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다가오는 잠자코 도로 발을 떼기 시작했다. 대문간에서는 어머니와 고모 그리고 할머니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자빠지고 고부라져 가며 통곡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내게도 어떤 고통의 감정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C]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맥고자한테 나를 일러 준 그 이복 아이를 찾아 동네 안팎을 무작정 뒤지고 다니는 동안, 그것은 일종의 배신감과 어울려 갈수록 무서운 분노로 변했고, 때로는 감당 못할 큰 슬픔이 되어 눈을 후비고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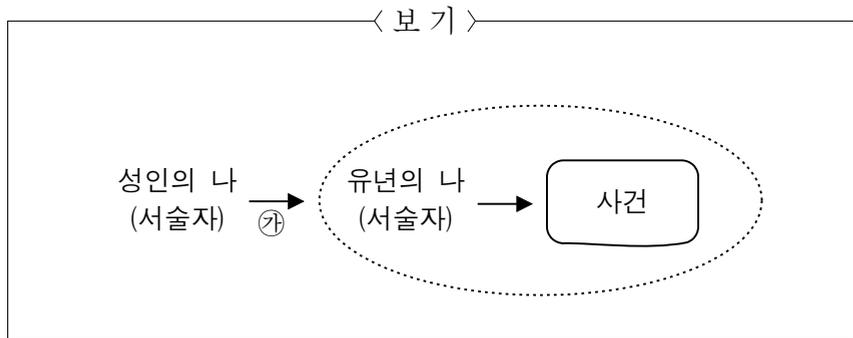
맥고자의 그 사내는 나한테 그런 얘길 들었다는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한 바 있었다. ㉥ 그것은 그때 나이의 내겐 어른들에 의해서 기록된 최초의 치명적인 배신이었다.

- 윤홍길, 「장마」 -

4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맥고자 사내’는 ‘나’를 회유할 의도가 있었다.
- ② ‘이복 아이’를 통해 ‘맥고자 사내’는 ‘나’를 찾게 되었다.
- ③ ‘삼촌’을 도망가게 한 발소리는 ‘낯선 사내’가 낸 것이다.
- ④ ‘고모’는 ‘삼촌’의 방문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짹혀가는 까닭을 알고 있다.

48. 위 글의 시점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 ~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B]의 상황을 유도하려는 ‘사내’의 발화이다.
- ② [A]로 인한 ‘나’의 갈등은 [B]로 인해 잠시 해소된다.
- ③ [A]에 대한 ‘나’의 망설임은 [B]로 인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 ④ [B]는 [C]의 상황을 어림짐작으로 넘겨짚은 ‘나’의 행위이다.
- ⑤ [C]에는 [B]로 인해 생겨난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5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핍한 당시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다.
- ② 서술자가 당시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 ③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서술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④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근심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서술자가 경험했던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밝힌 것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